

<Brief Report>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개발:^{*}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용

양 윤 란[†]

마인드빅 정신건강상담센터

오 경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사회기술 척도 문항 중에서 또래관계기술만을 측정하는 46개의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342명, 중학교 1-3학년 301명이었다. 요인분석 결과, 또래관계기술 척도는 19문항으로, 주도성과 협동/공감 두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4-.81이었고, 관련 척도와의 상관 분석 결과, 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또래관계기술 척도, 주도성, 협동, 공감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사회과학연구협회의 소규모 특별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 양 윤 란 / 마인드빅 정신건강상담센터 / 서울 강남 대치동 931-21아람빌딩 8층
TEL : 02-552-1656 / FAX : 02-552-1657 / E-mail : yoonran@freechal.com

사회기술은 이와 관련된 특질, 능력, 행동이 다양하며, 행동과 환경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사회기술의 습득과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Merrell & Gimpel,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기술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또래 및 성인과의 대인관계 관련 기술을 측정하는 문항 외에 학습기술 또는 학교 적응기술 등을 함께 측정한다. 그러나 사회기술의 포괄적인 측정은 측정결과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관련있는 행동들의 군집을 대표하는 사회기술의 주요 차원들을 특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래관계기술은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기술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차원이며(Caldarella & Merrell, 1997), 대부분의 자기보고식 사회기술 척도들은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는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를 하나의 주요 차원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제작을 위해서는 우선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Gresham과 Elliott(1984)의 사회적 타당성을 강조한 사회기술의 정의를 차용하여 또래관계기술을 “주어진 상황 내에서 또래 수용이나 인기도 또는 또래 수용과 일관된 상관관계를 갖는 다른 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타당성을 강조하는 사회기술의 정의는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에 근거하여 사회적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준다(Ellis & Whittington, 1983).

사회기술의 측정은 크게 세 가지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차원 모델에 근거하여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차원 모델은 사회기술을 사회적 유능성과 같은 구인에 비해서는 복잡성의 수준에서 보다 특정하며 특정한 개별적 행동 기술에 비해서는 보다 일반적인 중간 수준에서 측정한다(Cillessen & Bellmore, 2002). 특질(trait) 모델은 사회기술의 측정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미시적 행동(molecular) 모델은 특정 상황에서의 매우 구체적인 행동의 발생 빈도나 지속 기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평정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Arkowitz(1977)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기술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중 어떤 요소가 평가될만한 가치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기술하는 문항들로만 또래관계기술 척도를 구성함으로써 행동적인 수준에서의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사회기술 척도 가운데 일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 문항을 구성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예; Matson Evaluation of Social Skills with Youngsters-MESSY: Matson, Rotatori, & Helsel, 1983). 반면에, 사회기술 평정 시스템(Social Skills Rating System-SSRS: Gresham & Elliott, 1990)과 같은 척도는 발달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아동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하였으나 문항이 동일하지 않아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기술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또래관계가 중요해질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기술의 변화와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초기 및 중기 청소년

시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 모두에게 사용가능한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회기술인 또래관계기술은 문화적인 요인의 영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외국의 기존 척도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내 임상 현장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이 널리 실시되고 있지만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는 평가도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문성원(1998)이 SSRS-청소년용을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였으나 이 척도는 전반적인 사회기술의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이론적 연구 그리고 또래관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연구를 위해서는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실시 가능한 또래관계기술 척도(Peer Relational Skills Scale: 이하 PRSS)를 제작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척도 제작과정

예비문항은 1) Caldarella과 Merrell(1997)이 아동, 청소년의 사회기술을 측정하는 공통 문항으로 보고한 내용들, 2) 미국에서 출판된 사회기술 척도 중에서 아동, 청소년의 사회기술 연구에 가장 널리 쓰이는(Demaray & Ruffalo, 1995) SSRS(Gresham & Elliott, 1990)의 아동용과

청소년용, 3)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사회기술 척도 중에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회기술을 주로 측정하며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결과가 발표된 MESSY(Matson, et al., 1983)의 적절한 사회적 행동 요인 문항, 사회기술 질문지-학생용 (Social Skills Questionnaire-Pupil: Spence, 1995)과 청소년 사회기술 척도(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 Inderbitzen & Foster, 1992)에서 선정하였다.

연구자와 임상심리 전문가 1인이 1차로 선정된 총 215문항 중에서 선행 연구들(Caldarella & Merrell, 1997; Gresham & Elliott, 1990)에서 아동, 청소년기의 주요 사회기술로 보고한 1) 또래를 도와주거나 물건을 공유하거나 규칙을 따르는 행동(협동), 2) 또래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공감/감정표현), 3) 또래의 압력이나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행동(자기주장), 4)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행동(주도성)을 기술하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내용이 동일한 문항, 성인과의 사회기술 및 학업 관련 기술을 측정하는 문항은 배제하였다. 그 결과 46문항이 최종 예비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한 학급(남 18, 여 15명)의 학생들에게 교사가 문항을 하나씩 읽어주고 모르는 단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일부 단어와 문맥을 수정하였다. 일부 사회기술 척도들은 3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는데 3점 리커트 척도는 신뢰로운 반응 분포를 낳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래관계기술 척도는 각 행동의 빈도를 묻는 4점 리커트 방식("전혀 없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두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두개 중학교 1-3학년 학생 689명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생을 제외한 총 64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생은 342명(남학생 176명, 여학생 166명), 중학교생은 301명(남학생 142명, 여학생 159명)이었고 이 중 초등학교생 238명과 중학생 164명에게는 타당도 수집을 위한 자료를 함께 실시하였다. 연령군에 따른 성별 분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chi^2(1, n=643)=1.18$, $\chi^2(1, n=402)=.96$.

측정도구

메슨 아동, 청소년 사회기술 평가 척도(Matson Evaluation of Social Skills with Youngsters: MESSY)

Matson 등(1983)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사회기술 척도로 적절한 사회기술, 부적절한 사회기술, 충동성, 위축, 과잉확신 및 기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사회기술 요인 2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심리학 박사 인이 문항을 번역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90이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 (Social Support Scale)

이명숙(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Hater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구와 급우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4점 리커트 방식을 사용한다. 본 연구 자료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0이었다.

또래 거명 척도(Peer Nomination Scale)

또래 선호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함께 놀고 싶은 아이”, “함께 놀고 싶지 않은 아이” 각각에 대해서 동성의 같은 반 학생 3명씩을 거명하도록 하였다. 긍정거명 횟수에서 부정거명 횟수를 뺀 후 각 반의 성별 인원수로 나눈 점수가 척도 점수가 된다. 점수가 낮을수록 또래 선호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또래평가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또래평가 자료를 얻고자 양윤란(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구체적인 또래관계기술을 기술하는 6문항 각각에 대해 동성의 같은 반 학생 3명씩을 거명하도록 한다. 각 문항에 거명된 횟수를 합산하여 각 학급의 성별 인원수로 나눈 점수가 문항 점수이며 분석에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양윤란(2004)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4이었다.

조사 절차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은 학교 교사가 각 학급 단위별로 수업 시간 중에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결 과

신뢰도

초등학교생 집단의 PRSS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81, 주도성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77, 교정된 문항 총점 상관계수는 .35-.54, 협동/공감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74, 교정된 문항 총점 상관계수는 .32-.46이었다. 중학생 집단의 PRSS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83, 주도성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78, 교정된 문항 총점 상관계수는 .36-.56, 협동/공감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80, 교정된 문항 총점 상관계수는 .39-.59이었다.

타당도

요인분석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모두에게 사용가능한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제작하고자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각에 대해 사

표 1.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요인 분석 결과

문항	초등학생		중학생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1.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준다.	.55			.55
3.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놀이를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말한다.	.37		.20	.45
4. 처음 만난 아이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건다.	.63			.60
7.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내가 먼저 “친구 하자”고 말한다.	.66			.65
10.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으면 그 놀이에 끼워달라고 말한다.	.47			.50
12.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61			.62
14. 모르는 아이를 만나면 내가 먼저 나에 대해 소개를 한다.	.54			.51
15. 친구에게 숙제를 함께 하자고 말한다.	.38			.37
18. 친구에게 고민이나 걱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의논한다.	.42			.48
2. 다른 아이에게 빌린 물건을 아껴서 사용한다.		.52	.59	
5.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내 순서를 기다린다.		.52	.57	
6. 조별 활동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작업(예: 공부, 숙제, 과제 등)을 할 때, 내가 맡은 역할을 다한다.		.42	.49	
8. 나를 도와준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22	.37	.62	
9. 내가 실수를 한 경우에는 실수를 했다고 인정한다.		.39	.44	
11.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놀 때, 게임이나 놀이 규칙에 대한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56	.52	
13. 내가 다른 아이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경우에 미안하다고 말한다.		.40	.54	
16. 다른 아이에게 내 물건을 빌려준다.		.46	.54	
17. 내가 게임에서 졌더라도 이긴 친구에게 게임을 잘 한다고 말해준다.		.38	.40	
19. 게임이나 운동, 놀이의 규칙을 지킨다.		.59	.62	
고유치	4.37	2.04	4.72	2.33

주. 요인부하량은 .20 이상만 표기하였음.

각회전을 통한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자료의 분석 결과, Scree 검사에서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수가 12개였으나 Hair, Anderson, Tatham과 Black(1992)이 제안한 요인분석에서 추출되는 요인수에 대한 기준인 고유치의 크기, 변량비율 기준 및 Scree 검사 기준에 의해 고유치가 1 이상이며 전체 변량의 5% 이상을 설명하는 요인은 2개였다. 요인수를 2로 지정하고 동일한 방식의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이 .30 미만인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수를 2로 지정하여 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28 문항이 선정되었다. 중학생 자료에 대해서도 초등학교와 동일한 자료 분석 방법 및 원칙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요인 구조를 가진 34문항이 산출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이 각 요인별로 서로 일치하는 문항은 총 19문항이었다. 각 집단별로 19문항에 대해 요인수를 2를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된 2개의 요인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각 요인의 설명변량은 연령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는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내가 먼저 친구하자고 말한다” 등의 9문항으로 구성된 “주도성” 요

인의 설명변량이 22.99%이고, “게임이나 놀이, 운동의 규칙을 지킨다”, “나를 도와준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된 “협동/공감” 요인의 설명변량은 10.72%였다. 반면에 중학생은 협동/공감 요인의 설명변량은 24.85%, 주도성 요인의 설명변량은 12.28%로 초등학교와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 집단의 요인 형태계수 행렬과 고유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또래관계기술 척도와 다른 검사간의 상관

PRSS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관련 척도와 의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주도성과 협동/공감 요인은 MESSY의 적절한 사회기술 요인과 .58-.64 범위의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 척도와 의 상관도 .25-.49 범위로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사회기술 척도의 준거 타당도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또래 선호도와 또래평정과의 상관은 .15-.32 범위로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주도성 요인과 협동/공감 요인간의 상관은 초등학교 집단은 $r(342)=.41$ ($p<.001$), 중학생 집단은 $r(301)=.37$ ($p<.001$)이었다.

표 2. PRSS의 타당도 평가를 위해 사용된 검사간 상관행렬

		MESSY	사회적 지지	또래 선호도	또래평정
주도성	초 ($n=238$)	.60 ^{***}	.43 ^{***}	.15 [*]	.32 ^{***}
	중 ($n=164$)	.63 ^{***}	.49 ^{***}	.18 [*]	.26 ^{**}
협동/공감	초 ($n=238$)	.58 ^{***}	.31 ^{***}	.16 [*]	.21 ^{**}
	중 ($n=164$)	.64 ^{***}	.25 ^{**}	.21 ^{**}	.29 ^{***}

주. MESSY: 매슨 아동, 청소년 사회기술 평가 척도-적절한 사회기술 요인

* $p<.05$, ** $p<.01$, *** $p<.001$

표 3. PRSS 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초등학생			중학생			전체		
		남 n=176	여 n=166	전체 n=342	남 n=142	여 n=159	전체 n=301	남 n=318	여 n=325	전체 n=643
주도성	M	21.58	22.82	22.18	21.08	22.78	21.98	21.36	22.80	22.09
	SD	(5.04)	(4.96)	(5.03)	(4.48)	(5.04)	(4.85)	(4.80)	(4.99)	(4.95)
협동/공감	M	30.75	31.46	31.10	29.65	30.69	30.20	30.26	31.09	30.68
	SD	(4.67)	(4.37)	(4.54)	(5.26)	(4.52)	(4.90)	(4.97)	(4.45)	(4.73)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군과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령군과 성별에 따른 PRSS 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초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협동/공감 요인 점수($F(1, 639)=6.39, p<.05$)가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주도성($F(1, 639)=14.40, p<.001$)과 협동/공감 요인 점수($F(1, 639)=5.56, p<.05$)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실시가능한 자기보고식 또래관계기술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PRSS는 초등학교 4-6학년 집단과 중학교 1-3학년 집단 모두에서 주도성과 협동/공감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령군에 따라 각 요인의 설명변량은 차이를 보여, 초등학생에서는 주도성 요인이 전체 변량의 22.99%를 설명하는 반면, 중학생에서는 협동/공감 요인이 전체 변량의 24.85%를 설명하였다. 또래가 평정

한 또래관계기술을 종속변인으로 주도성과 협동/공감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두 집단 각각에 대해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은 주도성 요인만이($R^2 \text{ change}=.10, F(1, 236)=27.19, p<.001$), 중학생은 협동/공감($R^2 \text{ change}=.09, F(1, 157)=14.64, p<.001$)과 주도성 요인($R^2 \text{ change}=.03, F(1, 156)=4.55, p<.05$)이 유의하였다. 위의 결과는 PRSS의 주도성과 협동/공감 요인이 발달 단계에 따라 또래관계기술의 평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의 정도가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PRSS 전체 척도 및 주도성과 협동/공감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4-.81 범위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타당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PRSS는 자기가 보고한 사회기술 점수와 또래가 평가한 또래관계기술 점수와 상관이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주도적인 또래관계기술 그리고 협동적이고 공감적인 또래관계기술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들과 급우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또래들이 평정한 또래 선호도 점수도 더 높았다.

PRSS와 또래가 평가한 또래관계기술 및 또래 선호도와 상관이 평정자 및 측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실제 상관보다 과소평가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래는 또래관계기술의 주요 소비자라는 점에서 또래관계기술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다. 또래평정은 또래와의 실제 놀이 상황에서 아동이 보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잘 예측하며 (Ollendick, 1981),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기술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직접적인 행동관찰 다음으로 추천되는 방법이다 (Merrell, 2001). PRSS와 또래평정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PRSS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의 실제적인 또래관계기술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군과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기술 척도 점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협동적이고 공감적인 행동을 더 자주 보이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도적이고 협동적이며 공감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에 따른 차이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실제적인 행동을 정확히 반영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 학교의 교실 및 교육 환경이 협동/공감 점수에서의 연령군에 따른 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많은 학급들이 4-8명이 한 모둠이 되도록 자리를 배치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학급 환경이 이와는 다른 중학생에 비해 또래간에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더 빈번할 수 있다. 또한 중학생들은 수행 평가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에 비해 또래관계가 보다 경쟁적일 수 있다. PRSS에서의 성차는 “여자가 남자보다 대인관계를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Eagly, 1987)”는 점을 고려할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긍정적인 또래관계기술을 더 발달시켰을 가능성은 충분

히 있다. 그러나 후속 연구를 통해 또래관계 기술에서 성차가 일관되게 발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사회기술의 측정에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또래관계기술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또래관계기술은 아동과 청소년기 사회기술의 주요 차원으로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기술 척도들은 또래관계기술을 하나의 요인으로 다루지 않아 왔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기술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는 또래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술이 반영된 것이었다. 또래관계기술의 측정이 목적일 때, 전반적인 대인관계기술을 측정하는 기존의 사회기술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효과적인 행동이란 상황적인 맥락과 그 상황이 갖고 있는 변수들에 따라서 달라진다 (Hersen & Bellack, 1977)”는 점을 고려할 때, 측정의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 예로, Matson 등(1983)의 연구에서 MESSY 척도의 총점과 또래 선호도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기술의 측정에 있어서 사회기술의 주요 차원별로 보다 특정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임상 장면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 기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사용할만한 타당화된 측정도구들은 매우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타당화한 또래관계기술 척도는 임상 장면에서 또래관계 기술을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준거 타당도

자료로써 또래 상호작용에 대한 행동관찰 측정치를 포함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척도 제작 연구에 포함된 동일 연령군의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교차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또래관계기술이 발달 단계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른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문성원 (1998). 컴퓨터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미발표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양윤란 (2004). 또래관계기술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자기제시 기대와 자기통찰의 매개 중재 효과. 미발표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이명숙 (1997). 기질 및 또래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 종단적 패널 연구. 미발표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Arkowitz, H. (1977). Measurement and modification of minimal dating behavior. In M. Hersen, R. M. Eissler, & P. M. Miller (Eds.), *Progressive in behavior modification, vol. 5*. New York: Academic Press.
- Caldarella, P., & Merrell, K. W. (1997). Common dimensions of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taxonomy of positive behaviors. *School Psychology Review, 26*(2), 264-278.
- Gillessen, A. H. N., & Bellmore, A. D. (2002). Social skills and interpersonal perception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In P. K. Smith, & C. H. Hart (Eds.),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of social development* (pp. 356-374).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Demaray, M. K., & Ruffalo, S. L. (1995). Social skills assessment: A comparative evaluation of six published rating scales. *School Psychology Review, 24*(4), 648-671.
- Eagly, A. H.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llis, R., & Whittington, D. (1983). A guide to social skills training. Kent: Croom Helm.
- Gresham, F. M., & Elliott, S. N. (1984).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of children's social skills: A review of methods and issues. *School Psychology Review, 13*, 292-301.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2).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Hersen, M., & Bellack, A. S. (1977). Assessment of social skills. In A. R. Ciminero, K. S. Calhoun, & H. D. Adams (Eds.), *Handbook of behavioral assessment* (pp. 509-554). New York: Wiley.
- Inderbitzen, H. M., & Foster, S. L. (1992). The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ological Assessment, 4*(4), 451-459.
- Matson, J. H., Rotatori, A. F., & Helsel, W. J. (1983).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to measure social skills in children: The Matson

- evaluation of social skills with youngsters (MESS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1(4), 335-340.
- Merrell, K. W. (2001). Assessment of children's social skills: Recent developments, best practices, and new directions. *Exceptionality*, 9, 3-18.
- Merrell, K. W., & Gimpel, G. A. (1998).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nature and value of social skills*.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Ollendick, T. H. (1981). Assessment of social interaction skills in school children. *Behavioral Counseling Quarterly*, 1(4), 227-243.
- Spence, S. H. (1995). *Social skills Questionnaire-Pupil*. Oxford: Nfer-Nelson Publishing Company.
- 원고접수일 : 2005. 3. 15
게재결정일 : 2005. 8. 7

<Brief Report>

Development of Peer Relational Skills Scale for 4th-9th grades

Yoon Ran Yang

Mindbig

Mental Health Counseling Center

Kyung 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a Peer Relational Skills Scale for 4th-9th grades students (PRSS) and to confirm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data of preliminary 46 items assessing peer relational skills was collected from the existing social skills scales items. Participants were 643 students (342 in 4th through 6th grades and 301 in 7th through 9th grades).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Peer Relational Skills Scale was composed of 2 factors (total of 19 items): Initiative, Cooperation/Empathy. Internal consistencies for its subscales ranged from .74 to .81. Validity was established through correlational analysis with related scal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peer relational skills scale, initiative, cooperation, empathy